

80년 5월 22일 20사단 국군통합병원 확보 작전으로 무고한 시민 8명 살해 “무리한 작전 펼친 진짜 목적은 505보안대 사수”

보안사 일일속보철·전교사 작전처 일지 등서 숨은 의도 드러나

김희송 5·18연구소 교수 분석…대형 폭발물 ‘대화구’까지 설치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신군부의 핵심기관이었던 505보안대(당시 서구 화정동)를 사수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전개해 무고한 시민 8명을 살해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군이 그동안 국군통합병원 확보를 위해 진입했다고 밝힌 것과 달리 505보안대 앞 도로에 대형 폭발물의 일종인 대화구까지 설치하는 등 사실상 계엄군 핵심기관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이다.

23일 김희송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연구교수에 따르면 신군부는 그동안 20사단의 국군통합병원 확보작전은 ‘군 부대 요원 및 민간 부상자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지난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505보안대의 안전 확보가 감춰진 작전 의도였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20사단 총정작전 보고를 살펴보면 20사단 62연대 2대대는 1980년 5월 22일 오후 5시 APC(장갑차) 3대를 선두로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전교사)에서 출발한다. 문서에는 ‘50분 뒤 통합병원을 확보했다’고 적혀 있으며 전과는 사상 3명·부상 10명·체포 25명, 피해는 사망 1명·부상 4명으로 기록됐다. 여기에는 ‘통합병원 확보를 위

한 교전 결심, 군부대 요원 및 민간인 부상자 원활한 치료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각오한 지휘관의 작전구상이었음’이라는 문구가 첨부돼 있다.

이와 달리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 사태 일일속보철’과 ‘전교사 작전처 일지’에서 20사단 작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난다. 일일 속보철에는 5월 21일 오후 5시 15분 상황으로 ‘20사단장 책임하에 자체 경계 계획 수립 시행예정인 바, 담당 구역은 통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교사, 사월산 탄약고까지의 지역임.(505보안부대도 포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사실상 유혈진압을 지휘한 전투교육사령부와 505보안부대를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긴 문건이다.

실제 전교사 작전처 일지에는 다음날 새벽 0시15분 ‘도로차단 작업 4개소 완료’라고 나와 있으며 ‘보안부대 앞’이 차단 장소

에 포함돼 있다. 철조망만 설치된 다른 3곳(전교사 북문·정문·마북동 군인아파트)과 달리 보안부대 앞에는 ‘대화구 및 폭’이 설치됐다. 대화구는 전차나 차량의 이동을 저지하기 위한 폭발물로 살상반경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20사단의 국군통합병원 진입 작전은 5월21일 오후 광주시 외곽지역으로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 5월27일 전남도청 합락 이전 계엄군이 광주시가지로 재진입한 유일한 병력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20사단은 3명을 사살했다고 기록했지만, 집 안으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이매실(여·당시 68세)씨를 비롯한 총 8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사단 62연대 2대대 8중대 출신 정모(59·당시 일병)씨도 “당시 앞서서 가던 5·6중대는 치열하게 교전했다. 광주시민이 많이 희생된 것으로 안다”고 광주일보에

증언했다.

그동안 군이 국군통합병원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은 꾸준히 의문을 낳았다.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도 치료하고 있어 시민군이 굳이 위협할 이유가 없고 관련 기록도 없기 때문이다. 당시 국군통합병원장을 맡고 있었던 김연균 광주시의사회 고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입원한 민간인 환자는 137명에 달했다.

김 교수는 “5월21일 이후 유일하게 광주 시내권에 있었던 505보안대는 21일 오후 20사단에 경계병력을 요청한 데 이어 22일 새벽에는 ‘대화구’라는 대규모 살상 무기까지 설치하는 등 방어전략을 전개했다”며 “신군부가 505보안부대의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작전을 전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자 명예훼손’ 전두환 재판 28일 예정대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오는 28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 사건 첫 재판이 28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은 무작위로 전산 배당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41·사법연수원 33기)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번 첫 재판은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열릴 예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 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출석 또는 이송 신청에 대한 결론 여부와는 관계없이 첫 재판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언론에 공개할지도 고심 중이다.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고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지만,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조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잘못 고친 가스레인지 ‘땡’

며느리 숨지게한 시아버지 집유

광주지법 형사3단독(전기철 판사)은 “가스레인지를 고치다 불을 내 며느리를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조모(87)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자 가스호스 중간의 차단

기를 떼어내고 호스를 분리한 뒤 잠금 밸브가 있는 파이프에 호스를 다시 연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밸브에서 가스가 누출됐고 이 사실을 모른 채 불을 켜던 며느리 배모(43)씨가 화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과실이 중하지만 고령이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꿈을 위해 화이팅” 23일 오전 광주 진흥고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들이 ‘학생이 벌이 되는 진흥 한울터’를 주제로 꿈나무 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꿈을 적은 카드를 교정 가로수길에 매달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검,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오늘 소환

대의원에 금품 돌린 혐의

지난 2월 당선된 박차훈(61)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대의원에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2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박 회장은 24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회장은 지난해 추석명절에 대의원에 게 접시 등이 들어있는 선물세트를 보내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전국 대의원에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나주지역 대의원이 선물세트를 받고 선관위에 신고했으며,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할인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회장을 불러 선물세트를 보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금품 액수, 시기 등은 확인해 주기 어

렵다”며 “선관위 의뢰 당시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지만, 대의원들을 조사하면서 추가로 나온 내용이 있어 (박 회장의 소환)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첫 비상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4년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 지역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 348명이 온라인투표로 뽑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그동안 상임직이었지만 이번 17대부터 권한이 축소된 비상임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과정을 위탁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변태적 성매매 알선 2년간 수십억원 챙겨 광주경찰, 무더기 적발

광주 도심에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1만건이 넘는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여고생 교복, 간혹사 복장 등 특정 직업과 연관된 유니폼과 가면을 동원한 변태적 성매매로 수십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3일 “1만 7000여건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와 바지사장 등 5명을 구속하고, 여종업원 10명, 성매수남 5명, 건물업주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연락처를 분석하는 등 성매수 남성들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업주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광주 상무지구 소재 빌딩과 오피스텔 6곳을 빌려 1인당 9만~15만원씩을 받고 1만7000여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매출액이 10억~2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소 중 일부는 빌딩 1개층(규모 330㎡)을 전부 빌려 룸 10개를 만든 뒤 업소 간판도 달지 않고 입구를 철문으로 폐쇄한 채 운영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들은 또 건물 밖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차단해 빈 건물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건물 내·외부에 6개의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들 과묵한다며 애먼 초등생 폭행

○…아들 머리에 ‘탱탱볼’(고무공)을 튕겼다는 이유로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과 주변에 있던 여자 어린이들까지 폭행한 40대가 경찰서행.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회사원 김모(42)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자신의 아들(8·1학년) 머리에 탱탱볼을 튕긴 A(10·3학년)군을 폭행하고, 겁에 질린 A군이 알뜰결에 지목한 주변 여자 초등학생 2명(3학년)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향해 발길질까지 했다는 것.

○…폭행을 당한 여자어린이 2명은 김씨 아들에게 탱탱볼을 던지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외동아들이 과묵함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분을 삭이지 못해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 같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 /김한영기자 young@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